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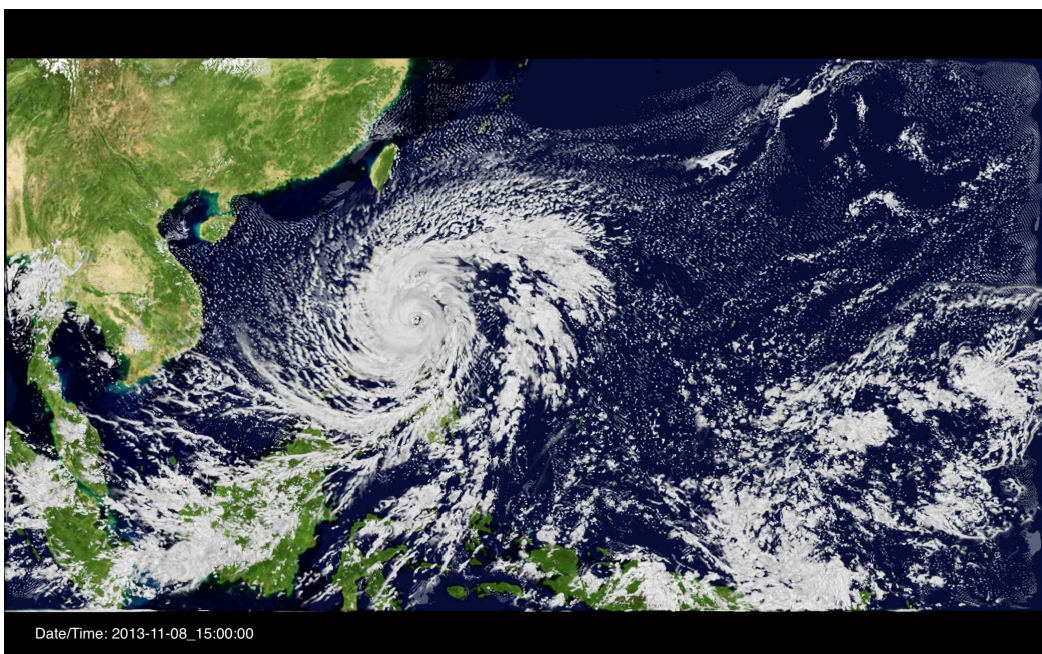
특히 키리졸브 훈련/독수리 연습(KR/FE 훈련) 기간 동안 전시 및 유사시 공군 컴퓨터 활용불능 상황을 가정하고 KISTI 슈퍼컴퓨터 기반 공군 수치예보 예비체계 운영 및 작전기상 수치예보지원 훈련을 실시하였다.

이런 협력을 바탕으로 독수리 연습간 공군 수치예보모델(KAF-WRF)을 무중단 운영하는 데에 성공하였다. 이를 통해 항공작전 수치예보 생산 및 지원, 합동작전 기상지원의 일환인 육군 포 사격 지원 기상제원을 산출하여 전시/유사시 대비 공군 수치예보 지원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다.

이와 관련하여 박영서 KISTI 원장은 “KISTI가 보유한 초고성능컴퓨팅인프라와 기상해양분야 3차원 과학적 가시화 기술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작전기상 지원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덧붙여 “앞으로도 공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슈퍼컴퓨터가 국가현안인 국방강화에도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앞으로도 KISTI와 공군 기상단은 슈퍼컴퓨터 활용을 통한 군 기상 지원 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동연구를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.(끝)



<2013년 태풍 하이옌을 수치모델링을 통한 3차원 가시화 결과>